

# 東大新聞

독립을 하고 성년을 이기고  
 고 착한 마음으로 악을 이겨  
 정진하라. 내것 배풀어  
 욕심을 이기고 참다운 지성으로 거짓을 이  
 기라.  
 <法句經·본노품249장>

발행인: 이종신  
 편집인: 김장영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 3가26 (2267-8577)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241-4132)  
 인쇄인: 이규행

제1016호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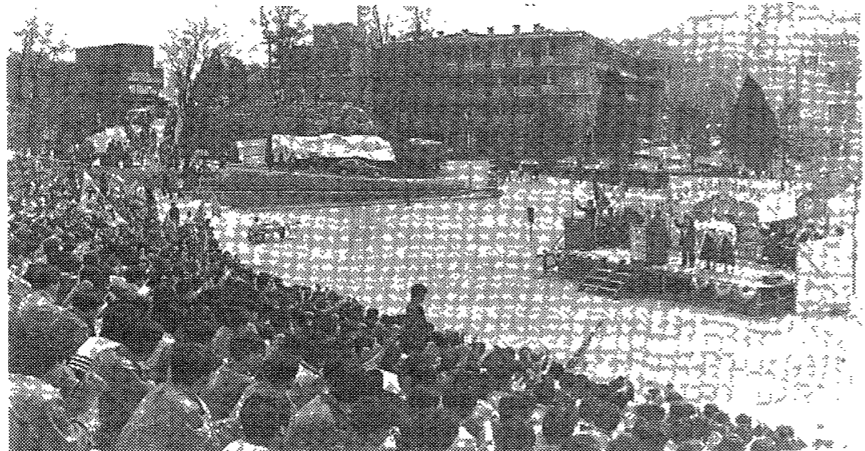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3호우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89년(단기4322년)3월29일(수요일) [1]

## "한표 행사로 민주적 총학건설을 30일오전 총학·여총 당락 판가름 28·29일투표 유세·공청회등 주요일정 모두마쳐"

제21대 총학생회 정·부회  
 장 선거를 위한 유세 및 공  
 개청문회 일정이 지난27일  
 모두 끝나고 이제 28일  
 과 오늘(29일)의 투표주  
 오 30일 오전에 당락이 판  
 가름된다.



유난히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난 28일과 오늘(29일) 투표가 치러져 당락을 결정짓게 된다.

3차유세는 지  
 난27일 오후 1시  
 20분 1천7백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단해광장에서 열렸다.  
 기호2번의 유세에 앞서 지  
 자유세에 나선 김홍균(철학  
 4)군은 『운동세력간의 결사  
 반목은 민주를 이루는데 가  
 장 큰 장애임』이라고 말했다.

이제 기호1번 부후보 이  
 용순(정의4) 군은 『재단구조  
 혁신을 위한 교수, 학생, 학  
 교당국, 재단, 직원의 5자연  
 석회의 즉각 구성』을 필두로  
 교수·학생연대의 사업전개  
 를 공약사업으로 들었다. 정  
 후보 이기재(토목4)군은 『살  
 인적인 민중탄압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일만동학 하나하  
 나』를 민중총학 건설하자』 『내  
 중부정권 관점에서 학자부를  
 수렴하자』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단결을 위한 모든 후보  
 들의 연인을 모아 행사를 종  
 결했다. 이준의 5자연석  
 의에 따라 각후보가 6명등 10  
 여명의 학생은 연단위에서 『일  
 치단결 민주동학』이란 열서  
 를 썼다.

기호3번 체법기(행정4)·  
 이원희(야간경영4) 조도 함께  
 연단에 서서 『주체적·민  
 주적 등약건설을 최우선 목  
 표로 정하고 이에대한 사업  
 으로 학교서비스 증차, 취업대  
 책위수, 학생의료비 공제등  
 의 복지문제와 재단활동의  
 활성화』 등의 사항을 공약했  
 다.

「제21대 총  
 공개 청문회」 학생회 정·  
 부회장 임부  
 보자들에 대한 공개청문회」  
 는 지난22일 오후 1시 학생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서관앞에서 열렸다.  
 학생회의 단결원칙과 관  
 계에 관한 질문에 기호2번 김  
 성규군은 『현 시점에서 단결  
 은 어떠한 논리에 입각하지  
 부다는 대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입각해서 상호신뢰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호3번 체법기군은 『단  
 결이 기본전제이지만 내용성  
 을 가지고 있을때 힘과 추  
 진력을 갖게된다』고 피력했  
 다. 또 기호3번 체법기군은 『학  
 생 개개인이 존중받는 틀속  
 에서 자연히 단결은 이루  
 어진다』는 의사를 표명했

대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  
 는 어둡고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眼光으로 파헤쳐  
 나갈 意氣있는 男女수습기자들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②응시자격: 1學年 男女 在學生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진기자  
 ④제출서류: 本社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  
 에서 배부)중  
 ⑤원서접수: 서울 4月6日 오후 4時까지  
 경주 3月30日 오후 4時까지  
 ⑥시험일자: 서울 4月6日 오후 5時  
 경주, 3月30日 오후 5時  
 ⑦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로관 A301(경주캠퍼스)  
 ※합격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  
 금을 지급합니다.  
 1989년 3월 일

東大新聞社

### 야구부 올 첫승 춘계대회 예선 제명대에 7-6 승

본교 야구부가 지난 24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대학야구 춘계리그전」 A조에  
 선 첫경기에서 제명대를 7-  
 6으로 꺾고 승리를 거두었  
 다.

### 외무고시 2차 정재남군 합격

제21차 외무고시 2차시험  
 에 정재남(법학88졸)군이 합  
 격하였다.  
 지난25일 총무처에서 발표  
 한 이번시험 합격자는 총26  
 명으로 본교에서는 1차합격  
 자 정군과 고인식(대학원·  
 2)과 기호2(학과)군이 시험에 응  
 시하였다.

## 「동국별관 신축」 의견조사 대극장·도서관등 교육공간 확충 절실해

기회조성에서는 지난 1  
 월 16일부터 2달동안 교수·  
 학생·직원·동문등 전 동국  
 인을 대상으로 「동국별관(가  
 건) 신축에 대한 동국인의  
 견조사」를 실시, 이 자료를  
 분석해 신축건설 설계의 기  
 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8년  
 6월24일 구제향군인회건물에  
 학생들의 의견을 집중수렴한  
 다는 합의 취지에 따라 실  
 시하게 됐다.  
 학교 1백주년을 앞둔 연  
 구고 교육공간의 확충과 호  
 열적 활용을 위한 캠퍼스 사  
 설의 일환으로 짓게 될 동  
 국별관의 상징물 및 형태를 주  
 필자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  
 는 교수 20명, 학생 67명,  
 대학원생 17명, 직원 24명,  
 동문 38명등 총 1백66명이  
 참가했다.  
 설문조사의 결과 신축건물  
 의 상징조형물로 코끼리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5%로 가  
 장 많았으며, 탑, 불상순으로  
 나타났다.  
 신축건물의 이름은 「만해관」  
 이 22%로 가장 많았고 동국  
 별관, 자비관, 동국문화관, 아트  
 홀, 민주관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축건물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는 대극장과 도서  
 관이 각각 47%로 나타나 가  
 장 필요제로는 회의장31%,  
 미술관및 전시실 29%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축건물의 크기를 묻  
 는 질문에는 88%가 넓이 허  
 용하는 최대규모(7층, 23m,  
 4,100평)로 해양이라고 대  
 답했으나 사실상 건물용 크  
 기는 지난번 학생들과 합의  
 로 확정된것이기에 때문에 따  
 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었  
 던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 88년도 졸업생 취업률 75%

경주는 0.5% 증가한 53.8%로 여전히 저조

서울캠퍼스 88학년도 졸업  
 생 취업률이 작년도의 71.  
 2%보다 4.1% 증가한 75.  
 3%로 집계되었다.  
 학생처 집계 따르면 2  
 월말까지 전체졸업자 2천3  
 백12명중 1천7백40명이 취  
 업하였고 이중 대학원진학(1  
 백19명)과 군입대자(1백46  
 명)를 제외한 순수취업은 63.  
 8%인 1천4백75명으로 작  
 년보다 2% 증가했다.  
 순수취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일반기업체가 가장많  
 은 7백39명이며 금융기관 2백  
 16명, 교직원 1백19명, 공  
 무원 86명, 각종고시 54명,  
 자가사업42명, 기타 2백19명  
 으로 나타났다.  
 단대별 취업률은 공과대가  
 88.1%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법과대 86.6%, 사  
 회과학대 80.9%순이며 사  
 법대가 가장 낮은 56.7%  
 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취업률은 남자가  
 81.2%인 1천4백28명, 여  
 자가 50.7%인 2백81명으  
 로 집계됐다.

경주캠퍼스 88학년도 졸업  
 생 취업률이 작년도의 53.8%  
 로 집계되었다.  
 학생처 집계 따르면 2  
 월말까지 전체졸업자 2천3  
 백12명중 1천7백40명이 취  
 업하였고 이중 대학원진학(1  
 백19명)과 군입대자(1백46  
 명)를 제외한 순수취업은 63.  
 8%인 1천4백75명으로 작  
 년보다 2% 증가했다.  
 순수취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일반기업체가 가장많  
 은 7백39명이며 금융기관 2백  
 16명, 교직원 1백19명, 공  
 무원 86명, 각종고시 54명,  
 자가사업42명, 기타 2백19명  
 으로 나타났다.  
 단대별 취업률은 공과대가  
 88.1%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법과대 86.6%, 사  
 회과학대 80.9%순이며 사  
 법대가 가장 낮은 56.7%  
 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취업률은 남자가  
 81.2%인 1천4백28명, 여  
 자가 50.7%인 2백81명으  
 로 집계됐다.

본사신임부주간  
 吳出世교수선임

본사부주간  
 金炳奇(상경  
 대 무역학과)  
 교수가 지난  
 3월 24일 보  
 조 사퇴함에  
 따라 신임부  
 주간으로 吳出世(인문대 국문  
 과) 교수가 3월24일자로 발  
 령되었다.  
 신임발령된 吳교수는 ▲71  
 년 본교 국문과출입 ▲84년

본교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87년부터 현재 본교  
 인문대 국문과 조교수로 재  
 직중이다.

교수동정

▲黃壽永(前총장명예교수)=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5일  
 까지 일본京都대학 문과  
 보론수리선다 초청으로 학  
 생정보 및 자료교환자 護日.  
 ▲李炳基(국문과)=지난달  
 25일 열린 「세계시민회의 발  
 기인 총회」에서 서울세계시  
 민회의 사무총장에 피선.

## 남녀 수습기자 모집

대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  
 는 어둡고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眼光으로 파헤쳐  
 나갈 意氣있는 男女수습기자들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②응시자격: 1學年 男女 在學生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진기자  
 ④제출서류: 本社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  
 에서 배부)중  
 ⑤원서접수: 서울 4月6日 오후 4時까지  
 경주 3月30日 오후 4時까지  
 ⑥시험일자: 서울 4月6日 오후 5時  
 경주, 3月30日 오후 5時  
 ⑦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로관 A301(경주캠퍼스)  
 ※합격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  
 금을 지급합니다.  
 1989년 3월 일

東大新聞社

## 일부 보직 인사단행

金泰俊교수는 국문과로 소속변경

학교당국은 지난3월24일자  
 로 임기만료된 경주캠퍼스일  
 부 보직인사와 정기직원 인  
 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발령을 보면 체육관  
 장은 연임되었으며 신임발령  
 된 보직인사 명단은▲기숙사  
 김—吳英珍(인문대 일본과 부  
 교수) ▲경주 교육방송국 주  
 김—朴相勳(상경대 경영학과  
 조교수) 등이다.  
 학교당국은 李영현(의과대  
 학 의학과) 조교수의 신규  
 교원 발령일자를 지난 2월  
 1일에서 3월 1일자로 정  
 정하였으며, 金泰俊(前문과대  
 일문과) 교수의 소속을 3월  
 15일자로 문과대 국문과교수  
 로 변경하였다.

## 변수

한국의 3월22일자보  
 면 「新世代 그들은 누구인  
 가」라는 특집을 싣고 있  
 다. 주제는 「심학하는 哲學  
 願望」. 여기서 보면 오늘의  
 신세대는 철학이있어서 순  
 수이론의 탐구보다는 현실  
 의 이념을 보다 더 추구  
 한다고 한다. 혼돈된 사회적  
 상황에서 고민과 갈등을 겪  
 는 이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  
 고 자아를 발  
 견하려던 정동  
 적인 철학의 화  
 문적 목적에 치중하기 보  
 다 철학을 현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가치판단  
 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세대는 자기  
 성찰보다는 사회철학을 찾  
 는다.  
 대학에서의 탐구와 주  
 체사상이 크게 대두되고있  
 는 것도 신세대들의 이러  
 한 현실적인 이념추구의 한  
 형태이고, 나아가 이것들을

통하여 사회의 구조적 모  
 순을 직결해 가야한다는것  
 으로 이해되는 바가 없지  
 않다. 개인이 선(善)하면  
 사회도 따라서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개인윤리를 강  
 조하던 총래의 도덕학이였  
 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사  
 회윤리학에서는 개인의 善  
 不善과는 관계없이 사회윤  
 리는 그 사회를 이루고있는  
 구조적인 틀이나 제도하  
 에 따라서 여러가지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신세대가 추구하는  
 철학의 방향을 충분히 이  
 해할 만하다. 그러나 한사  
 회의 갈등적인 모순구조나

제도가 꼭 어떤 한두가지  
 의 이데올로기(철학이 아  
 니)에 의해서 해소되어지  
 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본교에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있  
 어서 모순이나 갈등 그자  
 체를 우선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상의상자(相敬相資)하는  
 평등적 연기관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러므  
 로 유와무, 생  
 파사, 너와나와  
 같은 상대적 관  
 념들은 잘못된 理想의 소산  
 이라 본다. 공(空)은 이같은  
 대립들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차원이다.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현실개  
 혁의 의지나 행동도 필요  
 하지만, 인생의 본질과 우  
 주의 섭리를 본능으로 살  
 피고 깊게 생각하는 지혜  
 도 또한 절실하다.

宋在雲

상용 1939 1989 50

## 창업50년, 상용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상용의 새로운 심벌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창조 의의지입니다.  
 상용이 창업 50년을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끼고 이끌어주시던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오늘의 상용이 있음을 우리는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짐합니다.  
 50년 후, 100년 후 더욱 더 신뢰받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을.  
 창업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바뀐 상용의 심벌마크는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의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심벌마크의 뜻  
 상용의 새로운 심벌마크는 응시하는 두마리 용을 부드럽게 결합시킨 것으로  
 만물상생의 근본원리인 태극의 음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뱀장룡은 창달신인, 왼쪽 뱀장룡은 기초산업을 뜻합니다.  
 이는 기초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상용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상용 S

# 社說

## 등록금 실질동결 안됐다 기만적인 등록금동결 철회시켜야

등록금은 과연 동결된 것인가. 지난 9일 학생대표와 학교당국이 89년도 등록금동결에 합의했으니 이후 「동결」의 의미해석 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학생대표측은 전년도 전학년이 내었던 등록금이 올해 등록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이고 학교당국과도 이렇게 합의했다고 한다.

한편 학교측에서 등록금으로 책정한 내역을 보면 각 개인이 한 학년 상승하는 것에 상관없이 전년도에 내던 등록금과 똑같은 액수를 내도록 되어 있으나 도대체 학교와 학생간에 합의가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다.

학교측은 등록금동결의 의미 해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의문·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주장은 사실상의 등록금 인하라고 못 박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 합의내용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등록금동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학생대표에 뚜렷한 합의를 내지 못한 약간의 오류를 지적한다. 또한 교묘한 방법으로 도하하는 합의사항파기를 범하고 있는 학교당국의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등록금동결은 전년도 전학년이 내었던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타당성이 있음을 밝혀준다. 공과금의 경우를 3학

년의 수업료가 55만8천5백원으로 되어있는데 반면 지난해 3학년의 수업료는 45만6천8백원이다. 이 금액의 20%이상 인상된 액수가 3학년 학생들이 내야 할 등록금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이공계열 및 예체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코 동결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학년별 차이를 무시하고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을 해버린 학교당국의 이번 처사는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학교운영을 해 나가는 퇴보적 발상을 고집했는지. 이제 그러한 발상은 깨끗이 버려야 한다.

등록금동결이 단순히 돈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등록금동결 부정은 이를 통해 사회제정의 부당부합을 부정비리를 타파함과 동시에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재단의 구조적혁신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사행 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원민주 건설투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총학생회로 인해 이완되어 있는 학생회체제를 재강화시켜 학교당국의 기만적인 등록금동결을 철회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이제라도 등록금동결의 기만적합의를 인정하고 전년도 전학년과 같은 등록금 액수를 새로이 제시하라.



서울의 봄은 오고 있는가. 첫출부터 의문부호를 던져야겠다. 공자가 말씀하시던 『정치는 德』이라고 했다. 통치자와 국민 사이에 서로 믿고 신뢰하는 처치가 되면 틀림없는 善政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돌아보면 공자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화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朱致鎬 <중앙증권신문 편집국장>

이것이 오만한데 東國인에게 글을 쓰면서 첫출부터 의문부호를 던지는 상황이었으니, 역사상 유례없는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다시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80년 서울의 봄을 생각해본다. 사형선고를 받고서도 무려 15년여를 배일속에 기려있던 정치지도자들이 東國에서 강연을 하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보안사령관과 인민혁명군을 이끌었던 장두환씨가 신랄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보름사람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갖가지 고문과 잔인한 살해를 행하고 있었다. 서울의 봄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였다.

『春來 不似春』 참으로 묘한 세상이었다. 유신정권하에서 유년 조카 못하던 국민들이 정치비판을 하기도 했고 세세하게 강연을 하기도 해서 마치 서울에 민주정치의 봄이 왔다고 착각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두환그림의 강경파들이

# 역사의 매듭은 누가 풀 것인가

## 여권, 위기감 조성 발언 정략적으로 남발 민족민주세력의 역량을 표출할 상황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광주대학살이 벌어졌다. 시계 제로상태의 미중으로 빠져 들었던 것이다.

지금 당장 국민들은 서울의 봄을 느낄 수 없다. 지각있는 사람들은 강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또다시 4.19의 상황이 재현될 것인가. 전두환정권이 막을 내리고 노태우정권이 뜬을 열어보지 1년이 되면서 5.5공화국의 실체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단국역사 이래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폭정을 했던 전두환의 8년을 청산하는 것이 서울의 봄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국회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전두환씨의 폭정을 실감했던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던 것이다. 서울을 침략한 아무리 아름답다고 노래 불러봐도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았던 것이다.

왜 그럴까.

전두환씨의 함성처럼 얼골과는 달리 곱상스런 노태우씨의 인상으로 봐서도 푸근함을 느낄 수 있을 터인데 말이다. 도대체 국민의 마음을 위로 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제5공화국의 비리를 청산하고 光州의 응어리를 풀어야 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참으로 무기력했다. 모든 정치를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지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기 때문이다.

일요일만 5공비리 척결에 성역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서 현실적으로는 엄연한 성역을 두고 있다. 아비할 정도로 5공의 실세들은 눈가림과 변명을 가담치도 않게 연출하고 있다. 고위직의 피해를 무려 4만여 명이 넘었다고 하니 이제 속이 허울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아우성이고 노태우정권은 우물쭈물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참으로 한심스런 상황이다. 민주주의와 무기력함을 구별 못하는 1년이었으니 더 이상 무슨 말로 서울의 봄을 예견할 수 있겠는가?

이다. 그것은 항상 태풍의 눈으로 자리를 하고있던 육사17기의 김용갑 前총무처장관의 해괴한 사직 때문이기도 하다만 범어리같은 소신을 몇마디 던져 놓고 잠정해 버린 것이다. 장관 이런 정도의 자리이다.

관료의 쫓으로 봐야할 정승이 잠적사퇴라니 도대체 보름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도 즉시 사퇴수리가 아니고 그의 행방을 숨겨놓고 사퇴수리를 한 것이다. 또 육군사관학교 45기 졸업식에서 민병돈교장이 1대우대통령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졸업연설을 증언조로 해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6공의 실상을 어렵게나마 가늠할 수 있고 노태우대통령의 머뭇거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극우세력으로 불려지고 있는 강경파집단 때문이다. 이들이 서울의 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총과 칼로써 밀어붙이는 과감성을 미덕으로 알고 있는 부류들이다. 국민의 가슴에 M16소총을 겨냥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너졌는가.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속성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지금 극우강경파와 같은 존재들이 역사의 무대에 나설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 국민의 가슴에 M16 소총을 겨냥 극우파의 여론호도가 더 큰 문제

5공청산에 성역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선거운약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속칭 실세라는 핵심인물이 어렵게 수상으로 떠오르면 구차스런 변명으로 우물쭈물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분노와 탐담증은 오죽하겠는가. 노태우대통령의 열골에서 보여주고 있는 화산만 미소는 이제 무기력하고 나약함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일장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하나의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다. 열일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인데 국민여론을 흔들 줄 아는 인물로 알려진 노태우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뒤흔들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우연인가보다는 해괴한 포퓰리즘이 은밀하고 있어서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국방외교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국방외교는 노태우정권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것이 아닌가. 군사정권 28년세월사에서 미처 상상조차 못한 해투념이든 틀림이 없다. 만인이 주시하는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고서도 의전상 있을 수 있는 일이 라고 변명을 하고서야 여론에 밀

이미 흘러간 세월이다. 전세계가 화해의 물결로 뒤덮여 있는데 강경파라 기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세월에서 막강한 만용을 서슴지 않았던 실세들이 하나 둘씩 추풍 낙엽으로 무대에서 사라지는 해프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이 대권을 부여 했음에도 우물쭈물부기력과 나약함을 보이는 것은 직 무유가 아니겠는가.

이제 역사는 무제한 강경파들의 발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서울의 봄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안락이 아니겠는가.

## 개변과 자가당착에서 깨어나라

### 조선일보는 양심선언 해야 한다

언론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능을 하는 것은 그들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한 것이다. 언론의 양심과 용기의 대변자,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언론의 참모습이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에 밀려서 기생하고 있는 이 땅의 기회주의적 제도 언론들, 특히 근래의 「조선·평민」 사태에서 보여지듯 자기당착에서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한심스런 자세는 이미 회색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 명분없는 싸움에 지면은 온통 도색, 왜곡하고도 수세에 물린 조선일보의 「언론자유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억지는 바로 사이비언론이므로 단말마의 비명도 다름아니다.

1975년 3월 유신독재하에서 자유언론수호투쟁을 벌이던 기자들을 배려와 해직으로 짓밟고, 80년 언론폐합을 전두환 부에타점관과 공모하여 주도한 명백한 반민족·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불가협적 시대의 상황의 탓으로만 발뺌하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현대, 저하철노조의 파업 등 억압받고 소외되어온 기층민중의 터져나오는 생생한 울부짖음을 일부분자의 특권적 행동으로 매도하는가하면, 민족통일과 민주정부를 위해 헌신해온 청년학생을 좌경·용공세력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극우보수의 논리를 공공하게 펼치고 있다.

이제 더욱 놀라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고 박정희군을 고문치사한 유정, 고문기술자로 수배중인 이근안에게 자사제정의 침통봉사를 수여한 사실이다.

선량한 학생과 시민을 고문, 죽임에까지 몰고간 살인범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공무원의 표상이라는 논리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와 매관의 편에서 곡필 10년의 전통을 지켜온 그들이, 기회주의적인 「양심론」과 「군정론」으로 「말없는 다수의 소리에 귀기울이라」며 그 침묵의 의미를 제멋대로 호도해온 그들이 이제 감히 「언론자유」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유지하기 짝이 없는 개변과 자가당착에서 하루하루 깨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진정한 언론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 해야 할 일은 실소를 금지 못하게 하는 집요대가 아니라 그동안 진실과 공정을 말해온 자기파괴에 대한 양심선언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조선일보는 75·80년 언론학살의 책임인신과 해직된 기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의 특각일시 기간의 극우반동적 편집대도에 대한 공개사죄, 고문치사범에게 침통봉사를 수여한 파장과 경위의 해명 및 사과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동국발전위한 신규교수 임용을"

### 사회과학대 교과위에서 드러난 문제

학원민주화란 대학을 구성하는 주체인 교수·학생·직원 등이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도록 자율성을 실현하고 외부의 학원지배를 배척하는 것이다.

한 합의문을 살펴보면 신규교수의 채용은 학교교위의 결정을 따른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첫째, 학교교위에서 이력서 및 연구업적등을 공개하면서 교수와 함께 1인을 공동추천하거나 순위를 뒤 복수추천을 한다. 둘째, 그것을 단대교과위에서 취합하고 중앙교과위에 올린다. 그러면 중앙교과위는 그것을 검토하여 총장에게 올리고 총장은 그 중에 1인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내려보내 그 결과를 집행한다. 또한 총장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다시 학교교위에 내려 취합 결정을 하도록 재촉한다. 그런데 89년 상반기 신규교수임용은 합의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행되었고, 그 결과로 13교과에서 6개교과는 채용이 결

정되고, 8개교과는 보류되었다. 즉, 이러한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내려버린 것인데 그 결정의 근거를 살펴 본 결과 6개교과는 학교교위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채용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8개교과는 학교교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는가?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류가 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대교과위원장 사회과학대 학장이 신규교수의 신상카드에 「사회·행정학과 신규교수는 등 록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뽑아준 다」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행정학과

## 東國漫評



◇같이 거들시다!

신규교수는 채용이 보류되었다. 이에 교수와 학생은 학교의 신규교수초빙의 부당한 근거에 대하여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학교에 즉각 문제제기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7일 인사위원회에서 신규교수 임용확정 (하반기 9월), 그리고 상반기 대우조교수임용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면 신규교수 채용과정에서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동국발전 위원을 합의를 무시하였다. 둘째, 교과교 위 결정은 무시하였다. 셋째, 단대교과교과위원장 학장의 지위와 역할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었다. 넷째, 과연 대학이 영리단체인가 육영단체인가? 과연 돈때문에 매년대가를 결정하는 교수를 채용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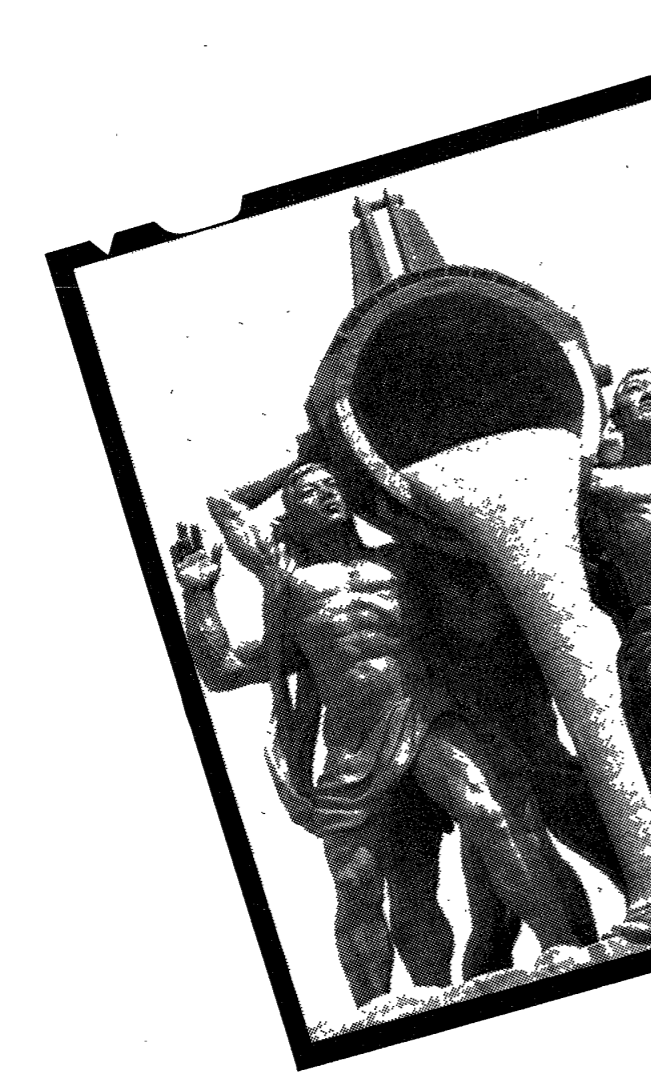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하는 것이다.

또한 교수회의 대의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지난 2월23일 합의한 합의문을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서가 중앙교과위로 날아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동국발전의 구조적 결핵인 교과위에 대한 위기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89년 등록금동결 또한 기만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재단활성화 추진위원회」구성 또한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위 주위 모두 학생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학자특의 성과를 치고 강화발전시켜야.

이규서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 젊은이의 웃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젊은이의 이상은 밝게 빛납니다. 짜투리 얼굴로 젊은이의 이상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이상이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끔 시도해 보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젊은이의 삶의 가치이고 보람일테니까요.

기업에서, 학교에서, 교단에서, 농어촌에서, 연구소에서, 경기장에서...

모든 곳에서 피어나는 젊은이의 환한 웃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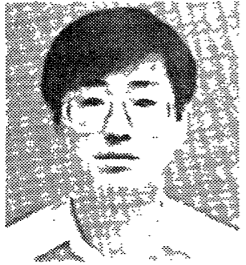
국민의 기업 포항제철은 곳곳에서 피어나는 젊은이의 웃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이 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논문을 간추린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註>



장 시 기 <대학원 영문학박사과정>

I. 머리말

80년대 한국의 사회구조 속에서 문화의 이론과 앞으로의 전망은 70년대 한국의 문화론과 필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화이론의 변화·발전은 무엇보다도 80년 5월의 광주외교와 87년 6월항쟁을 통한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인 한국민중의 삶 속에 내재화되었고, 문화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사실들을 발전적으로 창조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또한 70년대 백내 철교수가 주도했던 장비계열의 황석영, 신정림, 김지하, 고 은과 같은 작가들의 민족문화의 심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 한국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문화가 어떻게 위치지어져야 하고, 문화와 사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문화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적 질문들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고 하겠다. 80년대의 문화학자와 문화이론의 뚜렷한 특징은 전체 사회구조 내에서의 문화의 위상정립 뿐만 아니라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70년대 시민 문화론과 현재 중·고등학교 문화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의 문화강좌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비평 문화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80년대가 제시하고 있는 문화학과 문화에 대한 전방적인 이론의 변화는 현재 대학의 문화강좌에서 하나의 비평이론으로 소개되거나 아예 언급되지도 않는 리얼리즘 문화이론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계 문화사에 있어서 리얼리즘 문화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것과 연관하여 80년대 한국의 민족·민중문화론의 전망을 논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문화학자의 작품분석이 아니라 문화학자의 이론으로서의 리얼리즘론에 대한 것임을 밝힌다.

II. 소설의 발생과 리얼리즘

소설의 발생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일치한다. 이처럼 문화의 모든 장르에서 소설만큼 그 발생의 근원이 뚜렷한 장르는 없다고 하겠다. 특히 소설의 발생이 18세기 영국이라는 점은 소설이라는 문화 장르의 출현이 봉건주의 몰락, 또는 자본주의의 발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입증한다.

Ian watt는 그의 역저 「소설의 발생」(The Rise of the Novel)에서 소설의 발생에는 「독서대중의 증가」 「상류층 여성의 여가

# “리얼리즘 입각한 민중문화론으로 통일해야”

## —리얼리즘 문화론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전망

선용」 「중산층의 성장」이라는 세 가지가 궁극적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Arnold Kettle은 이러한 Ian watt의 설명에 덧붙여 「중세 문화장르인 로망스에 대한 신부르조아지 계급의 사실주의적 내용을」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설발생의 원인들은 소설발생의 전체적 조망에 있어서 하나의 부분일 수밖에 없다.

### III. 리얼리즘 문화론의 두 조류

고전적 의미에 있어서 리얼리즘의 모태는 Aristotle의 모방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고전주의에 있어서 Aristotle의 모방론은 고전주의의 핵심이 되는 문학적·미학적 개념으로 추상화되고 있다.

### 루카치의 비판적 리얼리즘의 특징은 문체나 기교상의 문제가 아닌, 집합적인 세계관을 중시하는데 있다

죽은 봉건적 사회질서에서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1세기후 세계 제 1의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로마를 형성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변혁의 공간은 세계관의 변화이지만, 여기선 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문화장르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로망스」이다. 로망스는 철저하게 귀족적인 문화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귀족적인 문화장르란 귀족들에 의해서 귀족들에게 읽혀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로망스가 귀족적인 문화장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철저하게 환상적 내지는 허구적 내용을 포함하면서 독자로부터 현실과 탈접적으로 직면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도피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의 특성중에 하나가 허구적 세계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구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은폐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내용적 측면에서 로망스는 봉건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출몰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사회변혁의 주제로서 등장한 상인·무역업자·소기업가·지식인들로 구성되는 신부르조아지 계급의 욕구와 취미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말이다. 이처럼 부르조아지의 주체적인 자각의 욕구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출몰한 것이 소설이다.

따라서 Richardson과 Steele이 주도했던 최초의 신문이 소설의 발생에 주된 자극제였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부르조아지 계급이 사회구성의 주체로서 등장한 것과, 그들의 주체적인 자각의 욕구라는 세계관의 변화는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게 된다. 소설이 갖는 내용과 형식의 규정성은 철저하게 현실적 상황과 대응하도록 이끌어주는 사실주의

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18세기 영국소설의 주제는 결핵제도와 신분제도와 같은 봉건적 관습의 타파와 봉건주의의 환상이나 허상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대립되는 개인주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보편성」(Concrete Universal)의 강조이다. 「구체적 보편성」은 결코 인간적인 것을 획득하지 못하며, 그저 막연한 분위기에 근거하여 침리주의로 귀속되거나 결국 운명주의로 귀속되는 추상적 경향성에 반대되는 리얼리즘의 뚜렷한 특징이다.

특징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삶에 대한 총체적 견해」이다 「삶에 대한 총체성」은 끝없는 세부묘사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인간과 인간·인간과 사물의 변화·발전해가는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루카치의 리얼리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단일성」(unity), 「총체성」(totality), 「객관성」(objectivity), 「진실성」(fidelity), 「진리」(truth) 등과 같은 용어들은 명백한 해명미학의 용어들이다. 따라서 루카치로 대표되는 「비판적 리얼리즘」(critical realism)과 고리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에 공통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해명미학의 기본적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명미학의 첫번째 명제는 「위대한 문화는 실재를 과정으로서 재현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의 작가, 독자, 주인공으로서 그 중심에 위치한다.

둘째로 해명의 반(反) 형식주의적 경향이다. 해명은 순수한 형식적·문체론적 접근에 상당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언어를 「수사적 미」로서 범주화하였으며, 상징을 예술적 표현의 가장 저급한 차원에 위치시켰다.

이와 같은 해명미학의 부가적 범주가 리얼리즘문화론에 공통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리얼리즘 문화론의 두 조류인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판적 리얼리즘의 주류를 형성하는 루카치의 문화정체도 해명미학의 마라카지기로 인간중심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루카치에게 있어서 리얼리즘이란 적극적 유머리즘의 반영이다. 따라서 리얼리즘이란 문체나 기교상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세계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략적으로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해명주의적 개념인 「구체적 보편성」(Concrete Universal)의 강조이다. 「구체적 보편성」은 결코 인간적인 것을 획득하지 못하며, 그저 막연한 분위기에 근거하여 침리주의로 귀속되거나 결국 운명주의로 귀속되는 추상적 경향성에 반대되는 리얼리즘의 뚜렷한 특징이다.

둘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삶에 대한 총체적 견해」이다 「삶에 대한 총체성」은 끝없는 세부묘사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인간과 인간·인간과 사물의 변화·발전해가는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셋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삶에 대한 총체성」이다. 「삶에 대한 총체성」은 결코 세부묘사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인간과 인간·인간과 사물의 변화·발전해가는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넷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사회적 존재와 개인의 특수성」의 조화이다. 단순한 기계론적 사고에서 작가의 주관성에 모든것을 위임한다면, 세계의 객

관적 인식과 상반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 자신은 작품 창작의 모든것을 궁극적으로 지각된 현실에 대한 그의 객관적 판단과 변증법적 인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반영할수있는 능력에 위임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위대한 예술가란 부르조아적 현실의 거센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가는 사람」이라고 루카치는 강조한다.

위에서 설명한 비판적 리얼리즘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술이나 문체상의 문제가 아니라 집합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루카치는 리얼리즘을 하나의 문학적 사조로서 생각하여 역사적 당위로서의 리얼리즘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위대한 리얼리즘 작가는 세익스피어와 단테는 물론 호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루카치는 리얼리즘에 내재해 있는 역사성을 상실하고, 리얼리즘을 문학적 초월적 가치로 이끌어가는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고 할 수 있다.

루카치는 달리 리얼리즘에 있어서 역사성을 강조한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다. 고리끼가 정의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네 가지 특성은 「강령」 「집단주의」 「낙관주의」 「교훈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성은 「강령」과 「집단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강령」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러시아혁명이후에 출발한다는 점에서 루카치의 민중성에 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주의」는 부르조아 사치생활의 주체로서 의미 있는 타락된 향락문화정당으로 안주함으로써 개인주의(부르조아 문화의 대표적 특성)에 반한 세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중문화론에서의 「민중」은 현 한국 사회의 계급·민족모순을 물론 분단순까지도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삼미가 세계로 뻗어갑니다**

삼미의 기업정신에는 세계를 향한 끝없는 개척의지가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불모지 한국에 특수강문화를 꽃피운 국민의 기업 삼미—35년간을 묵묵히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삼미는 서독FAG, 미국EATON, 이탈리아AGUSTA, 서독KLOCKNER, 캐나다KENHAR 등과 협력, 항공기, 자동차, 산업용설비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 및 완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삼미는 끝없는 개척의지를 바탕으로 미래의 신소재, 항공우주산업, 특수반도체 등의 첨단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첨단산업이 있는 곳—그뒤에는 언제나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 삼미가 있습니다.

**삼미그룹**

(주)삼미 | 삼미종합기계공업 | 삼미금속 | 삼미정공 | 삼미유나 | 삼미이론 | 삼미엔하 | 삼미화인 | 삼미세라믹스 | 삼미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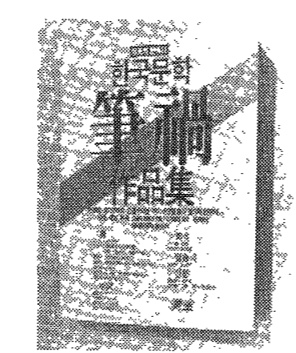
# 진정한 문학인이 소유할 의식조차 불허

해방이후부터 제5공화국까지 대표적인 필화사건에 연루되었던 작가들은 모은 『한국문학필화작품집』이 나왔다. 시, 소설, 희곡, 라디오극, 대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15명의 작가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혹은 살



아가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속에서의 문학의 의미, 역할 등에 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적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작

한 지향에 있다고 할 때 특정한 폭력적인 권력집단으로부터 문학의 자유를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문학작품들이 가해되는 탄압은 금극적으로 문학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사해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 그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 작가들—김지하, 양성우, 김준태, 이산하, 정경채, 남정현, 박양호, 현기영, 한수산, 구상—은 김지하, 양성우, 김준태, 이산하, 남정현, 한수산 등의 작품들과 관련된 탄압사실들은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경우에 속한다.

## 작가의 의도, 임의적으로 추측, 비약된 논리로 창의적 해석이 문제... 외부적 탄압이 작품 자체의 질적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러면 대표적인 탄압사건이다. 작품을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은 진정한 문학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온건한 현실비판의식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시대가 쌓아올렸던 어떠한 물질적 풍요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특정 집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그것도 양성우 시인이 그의 향수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에 걸쳐 표현된 것

들은 우리의 이러한 외부적인 탄압이 작품 자체의 질적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압적인 정치사회의 분위기 속에 속해있는 동안, 혹은 우리의 저항이 소극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

## 이사장님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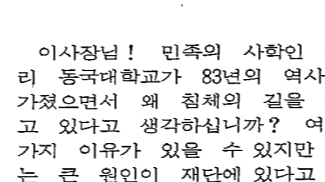
들은 자신의 연구와 강의에 충실하고 학생은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고 직원들과 동료들도 학교를 위해 노력할 때 그리고 이 모든 여건들을 위해서 밀어붙여야 하는 가장 큰 힘인 재단이 활성화될 때 가능합니다.

## 80여년 성장 빛내주십시오

푸르른 동양은 봄빛을 받아 눈이부십니다. 막 깨어난 듯한 자연을 보며 늘 새롭게 변천하는 생명의 열매를 따드립니다.

## '83년 역사에도 여전히 침체의 길 걷고 있습니다

침이 되고 있는 재단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견을 펴보고자 이사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등록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히 기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등록금 동결을 이야기한 것은 재단이 그간의 소극적인 모습을 버리고 학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라는 때문이었습니다.

교수채용이 왔다갔다하고 신규 사업의 폭이 좁아지고도 합니다. 새로운 교수님들의 채용은 학업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분을 모셔오는데 있어 저 등록금의 액수가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지난 학사투표과정 속에서 획기적인 만회방안준공을

이 이사장님! 이단학우의 열원을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재단이 과감히 시설투자와 장학금의 확대, 교수와 학생의 학문연마를 위한 도서관과 연구실의 재정비, 연구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올바르게 매김하면서 재단과 3위 1체가 될 때 우리 동국대학교는 민족의 대하세계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사장님도 학교의 발전을 바라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타학교에 비해 재단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학교에 비해서 엄청난 재단전입금이 부실한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님! 대학의 발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교수님

원인 통일방안 모색이 아닌 위로부터의 정치, 화려한 구호관의 선언내열에 사색해있는 국민들의 한숨 가늘어 들어오는 문목사의 평화도 소식은 위대함에도 열망이 신선한 것이었는가. ▲통일 향한 긴 협회도 분단고통은 이제 끝내야 하며 남북민중의 절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나 그어 놓은 선을 넘으면 위험·용공으로 돌아부처 대의를 저버리고 소의를 위해 회색을 강요할 것인가. 과연 남북사정 변화의 「사전절차」를 통해 평안으로 갈 수 있을런지의 의문과 함께 민족대단결의 계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40여년의 한을 한울만큼 풀어내려는 벅찬 감동의 시대를 언제쯤일런지 머리가 아려온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말투기

김성림 <3>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님! 민족의 사학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83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 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원인이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29년전 독재에 항거하며 뜨거운 몸부림으로 자유와正義를 갈구하던 4·19의 합이 암울한 오늘의 현실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 4·19의 참상을 되새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39년간 기념할 4·19 29주년 기념 「학생논문상」을 제정하여 원고를 모집합니다.

◇응모자격: 본교생에 한함 (대학원생 포함)  
◇분량: 2백자원고지 50매내외  
◇원고마감: 4월10일(월) 오후 5시  
◇발표: 4월19일(수) 본紙紙上  
◇접수: 본紙 학생부  
◇시상: 당선자 1편 (상장 및 상금 20만원) 각 2편 (상장 및 상금 15만원)

◇주제  
1. 4·19와 6월항쟁의 비교평가  
2. 일간지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향상의 문제  
3. 농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4. 불교의 사회적 실천원리  
5. 통일—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성을!

東大新聞社

월	화	수	목	금
8:30-9:00	동학의세아침			
9:00-9:30	Campus News			
9:30-10:00	5분이요	목요일	동국 focus	동국 sports
10:00-10:30	진리의 탐험	자유소리	안방일등	방송지없는 사람들
10:30-11:00	문화 특대경	D·U·B·S REQUEST	동아리	우리가
11:00-11:30	4월19일사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11:30-12:00	요지경 한계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12:00-12:30	목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12:30-1:00	4월19일사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1:00-1:30	남양이 동래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1:30-2:00	가느다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2:00-2:30	가느다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2:30-3:00	가느다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3:00-3:30	가느다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3:30-4:00	가느다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4:00-4:30	가느다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4:30-5:00	가느다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5:00-5:30	가느다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5:30-6:00	가느다	가느다	가느다	우리가

### 원고를 모집합니다

학내외의 각종 문화정보를 통하여 동학의 문화창달에 힘쓰는 저희 문화부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작은 노력을 소중히 글로써 실고자 합니다. 시·수필·소설·평론·평론 등 각종 문예물과 사진기사 등 지면문화 동학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글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원고분량은  
▲시: 매수제한없음  
▲수필: 7~8매 내외  
▲평론: 12~15매 내외  
▲소설: 25~30매내외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고료가 지급되며 투고에 대한 문의는 동대신문사 문화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部

## 새로나온 책들

### 한반도 개조론

구본일 지음  
한반도개조에 대한 발전지표와 국토개발의 문제 그리고 국민의식의 개량문제들로부터 우리 국가가 지향하여 나갈 진로를 모색한 『한반도 개조론』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책에서 한반도 개조의 3대 지표를 국토개혁의 문제(영토), 민족개조의 문제(국권), 정치발전의 문제(주권)에 대해 이렇듯 국가성립의 요건과 결부시켰으며 이웃민족과의 민족성비교,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해 자세한 언급하고 있다. <국무출판사·403면·4천5백원>

### 한국 사무직 노동운동

서관외 지음  
사무직노동 운동의 현재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이책도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장학자들과 사무직노동자의 핵심간부들에 의하여 집필되었다.

제1부「사무직 노동운동론 연구」에서는 4명의 필자들이 화이트칼라의 양적구성과 전체적구조에서 차지하는 계급적 위상의 실재를 분석하고 현재의 전체 사회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사무직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제2부「사무직 노동조합활동사례」에서는 전교합동 6개분야의 대표적 노조의 사례를 들고있다. <태양·305면·4천원>

### 중국문화 중국정신

이용환 지음  
중국학 학자인 C·A·S 윌리엄스가 중국의 변혁기였던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대륙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과 개념에 대해 연구한 「중국문화 중국정신」은 유구한 전통에 바탕을 둔 중국문화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하고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문양은 형태들의 도해와 함께 중국 초기민족들 종속과 예술, 학문발전적인 개념과 상징에 대해 270개의 항목으로 정리했으며 삽화도 곁들여있다. <대원사·478면·5,000원>

### 민족주의 운동

오재공 지음  
민족의 이성을 일깨우고 문화적 통일성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는 민족주의 운동의 개념과 민족의 의의와 사회적 의의에 대한 이해는 민족주의의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있다. 「민족은 통일되어야 한다」 「근대화와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등 네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거족적인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쓰고있으며 근대화와 민족통일을 부추길 민족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가족화운동」을 제시한다. <민족문화사·169면·2천5백원>

### 북녘 사람들

김우경 지음  
50년대 전후(戰後) 북한사회의 변모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기행집 「북녘 사람들」이 간행되었다.

작가 크리스마카(프랑스의 영화감독·사진가)가 58년 북한을 방문하여 현재의 생활모습과 풍경을 담은 140여점의 흑백사진과 기행감상문 등으로 엮여 있으며 50년대의 군사분계선, 평양시내의 복구사업 현장, 강서교본 금강산등의 작품을 수록, 북한의 사회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있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해준다. <눈빛 188면·5천5백원>

### 한국민족문화사

허문섭 지음  
민족문화의 관점에서 조선문화의 역사를 서술한 「한국민족문화사」가 간행되었다.

연변 조선문화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가 삼고사대부터 19세기 봉건말기에 이르는 조선문화의 역사를 정리했다. 유구한 전통 중국문화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하고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문양은 형태들의 도해와 함께 중국 초기민족들 종속과 예술, 학문발전적인 개념과 상징에 대해 270개의 항목으로 정리했으며 삽화도 곁들여있다. <대원사·478면·5,000원>

###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견서

민변 지음  
인권헌법운동과 법개폐운동은 인권 보호를 위한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펴낸 이책은 현재 체제수호라는 미명 아래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반민주악법과 5공비리청산 노사문제등 법의 권력편중주의적 집행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사회기밀보호법, 언론관계법, 도시재개발법등 14개부분에 대해 개정필 폐지에 관한 의견서를 실고 대대적인 민주화투쟁을 위한 여러단체들 가운데 반민주악법의 개폐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세법률사·245면·3천원>

### 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

양성현 지음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분야의 분단및 통일논의를 총정리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한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가 나왔다. 이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정무나 학계의 통일논의가 과잉의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경남대 출판부 연구서·558면·6천5백원>